

도내 보호관찰 학생 학교생활 돕는다

전북교육청, 학생-교사 1대1 멘토링 사업 운영... 생활교육·상담 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한 1대1 멘토링 사업을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보호관찰 학생과 교사를 일대일로 연결하는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생 지도에 전문성을 갖춘 멘토 교사와 보호관찰 대상 학생을 1대1로 매칭해 학교 인팍에서 생활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전주·군산·남원·정읍 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보호관찰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보호관찰 학생과 교사를 일대일로 연결하는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된 멘토 교사들은 월 1회 이상 멘티 고 고민 상담, 생활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도내 49개 학교에서 41명의 멘토 교사가 4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생활지도를 펼치며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27일 보호관찰소 담당자들과 업무협의 회를 열고 올해 멘토링 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청은 이날 협의회에서 보호관찰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학교와 보호관찰소,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과 지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공교육의 관심과 일사 속 보살핌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체계적인 지원과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익산학생교육문화관, 4월 도서관주간 프로그램 운영

익산학생교육문화관이 4월 도서관주간을 맞아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익산학생교육문화관(관장 박성현)은 '도서관 속 작은 펼침, 세상을 여는 큰 열림'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도서관주간에는 총 6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먼저 독서 장려 프로그램으로 '책에서 만나는 행운'을 운영해 유아와 학생 도서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고 기념품을 제공한다. 또 '넉넉히 즐기는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보다 대출 권수를 확대해 보다 자유로운 독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오는 4월 11일 시청각실에서는 책벌레의 비밀 응급실의 저자인 동화책을 초청해 강연 '동화책과 함께하는 책벌레의 비밀 응급실'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어린이들이 책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과 유아를 대상으로 캐릭터 색고 방향제 만들기, 창의 키보드 키템 만들기, 볼케이트 체험 등 독서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프로그램별 참여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익산학생교육문화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프로그램별 참여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익산학생교육문화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프로그램별 참여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익산학생교육문화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프로그램별 참여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익산학생교육문화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프로그램별 참여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익산학생교육문화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프로그램별 참여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익산학생교육문화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프로그램별 참여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익산학생교육문화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프로그램별 참여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익산학생교육문화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프로그램별 참여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익산학생교육문화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프로그램별 참여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익산학생교육문화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프로그램별 참여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익산학생교육문화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프로그램별 참여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익산학생교육문화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프로그램별 참여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익산학생교육문화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프로그램별 참여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익산학생교육문화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프로그램별 참여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익산학생교육문화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지역 미래인재 육성 지속

이복산장학회, 상반기 장학금 2720만원 지급

재단법인 이복산장학회가 지역 학생들을 위한 상반기 장학금 지원에 나섰다.

이복산장학회(이사장 성하익)는 지난 28일 도내 중·고등학생 44명에게 총 2720만원의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중학교 16개교 학생 16명과 고등학교 18개교 학생 28명에게 전달됐다. 중학생은 1인당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연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장학회에 따르면 2007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연인원 1,338명에게 총 8억 2,861만7,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힘써왔다.

올해 창립 19주년을 맞은 이복산장학회는 지금까지 204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으며, 대학생 회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인당 100만원의 연수비를 지원하며, 현재까지 77명이 참여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지난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대전과 무주태권도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선운배 60명이 함께하는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게임과 소통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높이고 응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복산장학회는 앞으로도 장학생들이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전북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학회 관계자는 "장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든든한 인재로 성장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재단법인 이복산장학회가 지역 학생들을 위한 상반기 장학금 지원에 나섰다.

이복산장학회(이사장 성하익)는 지난 28일 도내 중·고등학생 44명에게 총 2720만원의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중학교 16개교 학생 16명과 고등학교 18개교 학생 28명에게 전달됐다. 중학생은 1인당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연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장학회에 따르면 2007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연인원 1,338명에게 총 8억 2,861만7,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힘써왔다.

올해 창립 19주년을 맞은 이복산장학회는 지금까지 204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으며, 대학생 회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인당 100만원의 연수비를 지원하며, 현재까지 77명이 참여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지난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대전과 무주태권도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선운배 60명이 함께하는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게임과 소통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높이고 응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복산장학회는 앞으로도 장학생들이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전북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학회 관계자는 "장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든든한 인재로 성장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장학회 관계자는 "장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든든한 인재로 성장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장학회 관계자는 "장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든든한 인재로 성장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장학회 관계자는 "장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든든한 인재로 성장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장학회 관계자는 "장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든든한 인재로 성장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장학회 관계자는 "장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든든한 인재로 성장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장학회 관계자는 "장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든든한 인재로 성장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장학회 관계자는 "장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든든한 인재로 성장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혁신 플랫폼 대학 발전시킬 것"

신임 장지성 전주교대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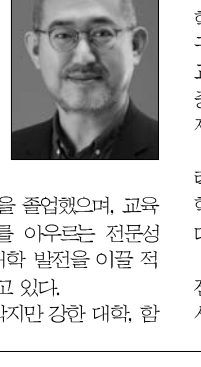
전주교육대학교는 제9대 총장에 장지성 박사(사진)를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신임 총장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으며, 교육과 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학 발전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장 총장은 "작지만 강한 대학,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 혁신 플랫폼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미래교육 혁신플랫폼 기반 교원양성 모델 구축 △미래형 교육 인재 양성 △교육·연구 지원 강화 △구성원 중심 대학문화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성원과 함께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혁신 플랫폼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임식은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 30분 교내 교사교육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장 신임 총장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으며, 교육과 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학 발전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장 총장은 "작지만 강한 대학,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 혁신 플랫폼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미래교육 혁신플랫폼 기반 교원양성 모델 구축 △미래형 교육 인재 양성 △교육·연구 지원 강화 △구성원 중심 대학문화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성원과 함께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혁신 플랫폼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임식은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 30분 교내 교사교육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 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북교육청, 내달부터 6월까지 여덟차례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센터장 장길)는 4월부터 6월까지 학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이와 함께하는 예술 치유'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교육 역량 강화와 학부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역을 순회하며 총 8차례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초·중학생 자녀와 학부모이며, 일반가족과 기관·단체 및 학부모 동아리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일반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전주, 군산, 익산에서 열린다. 전주는 4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센터장 장길)는 4월부터 6월까지 학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이와 함께하는 예술 치유'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교육 역량 강화와 학부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역을 순회하며 총 8차례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초·중학생 자녀와 학부모이며, 일반가족과 기관·단체 및 학부모 동아리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일반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전주, 군산, 익산에서 열린다. 전주는 4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센터장 장길)는 4월부터 6월까지 학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이와 함께하는 예술 치유'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교육 역량 강화와 학부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역을 순회하며 총 8차례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초·중학생 자녀와 학부모이며, 일반가족과 기관·단체 및 학부모 동아리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일반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전주, 군산, 익산에서 열린다. 전주는 4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센터장 장길)는 4월부터 6월까지 학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이와 함께하는 예술 치유'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교육 역량 강화와 학부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역을 순회하며 총 8차례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초·중학생 자녀와 학부모이며, 일반가족과 기관·단체 및 학부모 동아리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일반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전주, 군산, 익산에서 열린다. 전주는 4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센터장 장길)는 4월부터 6월까지 학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대 GTEP 사업단, 무역인재 양성 성과 빛나

수로·발대식에서 국제무역학과 이윤 교수 장관 표창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사업단)이 한국무역협회 주관 수료 및 발대식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으며 지도교수와 학생들이 잇따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대는 지난 27일 오후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이윤 교수(국제무역학과)가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23년부터 GTEP 사업단 지도교수로 참여해 사업단을 이끌며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시장 개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학생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장혁진(스페인중남미학과) 학생은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고병익(무역학과) 학생은 한국무역협회장상을 각각 수상하며 우수한 역량과 모범적인 활동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모의박람회를 통해 발생한 매출 일부를 2025년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고, 외국 바이어 초청 상담에서 봉역 및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사업단)이 한국무역협회 주관 수료 및 발대식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으며 지도교수와 학생들이 잇따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대는 지난 27일 오후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이윤 교수(국제무역학과)가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23년부터 GTEP 사업단 지도교수로 참여해 사업단을 이끌며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시장 개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학생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장혁진(스페인중남미학과) 학생은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고병익(무역학과) 학생은 한국무역협회장상을 각각 수상하며 우수한 역량과 모범적인 활동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모의박람회를 통해 발생한 매출 일부를 2025년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고, 외국 바이어 초청 상담에서 봉역 및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사업단)이 한국무역협회 주관 수료 및 발대식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으며 지도교수와 학생들이 잇따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대는 지난 27일 오후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이윤 교수(국제무역학과)가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23년부터 GTEP 사업단 지도교수로 참여해 사업단을 이끌며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시장 개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학생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장혁진(스페인중남미학과) 학생은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고병익(무역학과) 학생은 한국무역협회장상을 각각 수상하며 우수한 역량과 모범적인 활동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모의박람회를 통해 발생한 매출 일부를 2025년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고, 외국 바이어 초청 상담에서 봉역 및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사업단)이 한국무역협회 주관 수료 및 발대식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으며 지도교수와 학생들이 잇따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대는 지난 27일 오후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이윤 교수(국제무역학과)가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23년부터 GTEP 사업단 지도교수로 참여해 사업단을 이끌며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시장 개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학생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장혁진(스페인중남미학과) 학생은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고병익(무역학과) 학생은 한국무역협회장상을 각각 수상하며 우수한 역량과 모범적인 활동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모의박람회를 통해 발생한 매출 일부를 2025년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고, 외국 바이어 초청 상담에서 봉역 및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사업단)이 한국무역협회 주관 수료 및 발대식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으며 지도교수와 학생들이 잇따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대는 지난 27일 오후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이윤 교수(국제무역학과)가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23년부터 GTEP 사업단 지도교수로 참여해 사업단을 이끌며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시장 개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학생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장혁진(스페인중남미학과) 학생은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고병익(무역학과) 학생은 한국무역협회장상을 각각 수상하며 우수한 역량과 모범적인 활동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모의박람회를 통해 발생한 매출 일부를 2025년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고, 외국 바이어 초청 상담에서 봉역 및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사업단)이 한국무역협회 주관 수료 및 발대식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으며 지도교수와 학생들이 잇따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